

[2025-4호]

| | | | | | |
|---|------------------------------|------------------|------------|--|--|
|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 | <h1>보 도 자 료</h1> | |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총 3쪽 | |
| 배포일시 | 2025. 1.30(목) | 담당부서 | LA한국문화원 전시 | | |
| 연락처 | 323-936-3014/tammy@kccla.org | 담 당 자 | Tammy Cho | | |

LA한국문화원, 광복 80주년 기념 한미 원로작가 교류전 개최

- 2월 6일부터 <같은 하늘 아래: 예술의 유산> 주제로 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려

여덟명의 LA 한·미 작가가 한자리에 모이다



Celebrat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National Lib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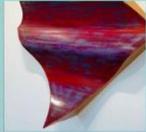
Beneath a Shared Sky: A Legacy of Art

같은 하늘 아래: 예술의 유산

Feb. 6 - 27, 2025
 Opening Reception: Feb. 6, 6:30pm










- ▶ 전시명 : 광복80주년 기념 한미 원로작가 교류전 <같은 하늘 아래: 예술의 유산> ("Beneath a Shared Sky: A Legacy of Art")
- ▶ 전시기간 : 2025.2.6(목)-2.27(목) ▶ 오프닝 리셉션 : 2025.2.6(목) 18:30-21: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공동주최 : LA한국문화원 (KCCLA),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KAASC)
- ▶ 초대작가 : 김진실(Jin Sil Kim), 신정연(Jung Yeun Shin), 조분연(Boon Yen Cho), 홍선애(Sunny H. Kim), 로버트 커닝햄(Robert Cunningham), 팀 도일(Tim Doyle), 에릭 존슨(Eric Johnson), 벤 재스크(Ben Zask)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17:00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2월 6일부터 3주간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한미 원로작가 교류전 <같은 하늘 아래: 예술의 유산> (Beneath a Shared Sky: A Legacy of Art)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회장 전윤선)와 공동 기획한 전시로,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1세대 한인과 미국 원로 예술가들이 함께 양국의 문화적 유산과 예술적 성취를 조명하는 행사다.

김진실(Jin Sil Kim), 신정연(Jung Yeun Shin), 조분연(Boon Yen Cho), 홍선애(Sunny H. Kim), 로버트 커닝햄(Robert Cunningham), 팀 도일(Tim Doyle), 에릭 존슨(Eric Johnson), 벤 재스크(Ben Zask) 등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평면 회화부터 조각, 혼합 매체에 이르기까지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세대를 초월한 예술적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한미 예술가 간의 깊은 우정과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진실 (b. 1947)



신정연 (b.1943)



조분연 (b.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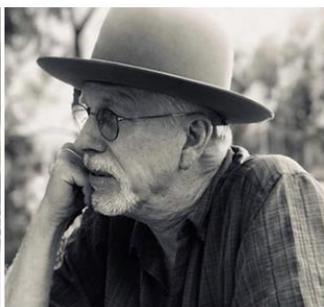
홍선애 (b.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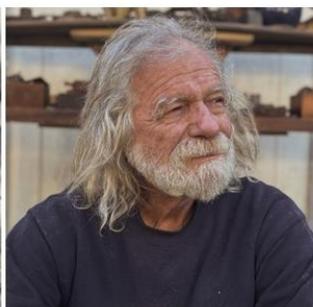
Robert Cunningham (b.1940)



Tim Doyle (b.1959)



Eric Johnson (b.1949)



Ben Zask (b. 1951)

LA한국문화원 정상원 문화원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와 함께 LA지역 원로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1세대 한인 작가들의 예술적 발자취를 조명하고, 미국 원로 작가들과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다인종, 다문화 예술 커뮤니티 속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윤선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회장은 “남가주 한인 이민를 함께해 온 한인 원로 작가들과 이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원로 작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별전을 통해 서로의 예술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 개막식은 2월 6일 오후 6시30분 LA한국문화원에서 2층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전시는 2월 27일(금)까지 계속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 바랍니다. /끝/